

추석 연휴 순천 한바퀴... 힐링과 추억속으로

순천만 황홀한 일몰 감탄 절로
낙안읍성서 옛 기억 고스란히
드라마촬영장 교복 입고 활보
짬뽕어·국밥 등 먹거리도 풍성

이제야 가을인가 싶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쌀쌀하다.

가을이면 갈대밭이 그립다. 가을빛을 튕겨내며 하얗게 빛나는 억새를 보며 여유롭게 걷고 싶다. 고향집 냄새 가득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가. 그렇다면 순천으로 가라. 입맛 돋우는 먹거리도 가을의 추억을 풍성하게 해주는 덩이다.

◇그 유명한 갈대밭=가을 일몰 무렵 순천만은 꼭 한 번 가봐야할 곳이다. 시야 가득 풍성한 가을이 들어온다.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그 유명한 'S'자 곡선 수로, 일몰 풍경은 가을 그 자체다.

자연물로 만나는 나만의 엽서, 흑두루미 모빌, 소망패 만들기, 갈대 스탠드 만들기 등은 여유롭게 순천만을 즐기는 소품이다.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 밤 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김승옥 '무진기행' 중)

순천만의 유명한 안개도 농칠 수는 없다.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새벽무진 선상투어는 안개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행사다. 생태해설사가 풀어내는 해설로 새벽 산책도 심심하지 않을 듯하다. 갈대밭에서 소원을 빌고 싶다면 순천만 천문대를 찾는 게 좋다. 4일부터 6일까지 대보름달 보기 행사가 열린다.

◇옛날엔 이랬지=자녀를 둔 어른들이라면 명절에는 옛 것에 대한 관심과 기억이 각별해지지 않는가. 순천 낙안읍성에



순천만 일몰

는 성, 동헌, 조가, 뒷마루, 고살길, 아이들에게 보여줄 '옛 것들'들이 있다. 살아 숨쉬는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접할 수 있다.

명절 관광객들을 위해 국악한마당을 열고 제기차기, 투호, 장기, 윷놀이 등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북, 장구, 팽과리, 소고 등을 연주해 보고 길쌈, 가야금, 전통혼례 체험도 가능하다.

낙안읍성 인근 뿌리깊은나무 박물관도 전통복 만들기(10월 3~5일), 한복입고 사진찍기(10월 1~9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영화·드라마 속 그 풍경=순천 드라마촬영장은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청소년들이라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오래 전 풍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추억거리가 가득하다. 추석 연휴, 한복을 입었다면 공짜로 둘러볼 수 있다.

옛 교복을 빌려 입고 골목을 활보하며 셀카를 찍거나 옛 시골 장터에서 추억의 음식을 맛볼 수도 있다.

추석 연휴기간,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 즐겼던 고무신 날리거나 비사치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품을 준비해놓았고 다음달 5일에는 고리던지기, 떡매치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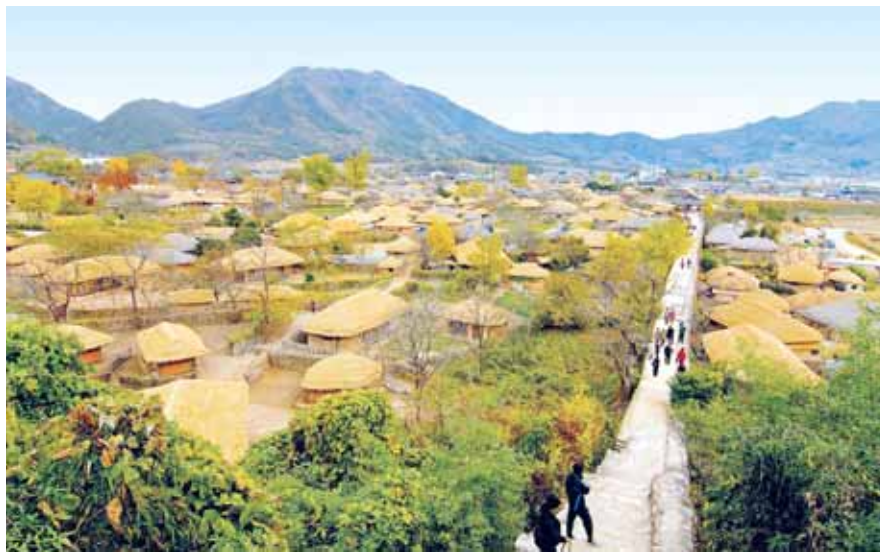
여기에 가을을 풍성하게 하는 '식육 돈'은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찬바람이 불면 삶이 통통하게 오른 짬뽕어와 염소떡갈비, 따뜻한 국밥, 쫄쫄깃한 닭구이는 순천에서 한번씩 맛봐야할 별미다. 아랫장 아시장은 볼거리도 많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드라마촬영장 교복 체험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스포츠관광 활성화도 박차

전국대학야구대회 유치 나서고

전훈·몽골 유도팀 초청 등 추진

순천이 스포츠관광 활성화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연간 27개의 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스포츠 대회나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공을 들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내년 1월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전국유도대회를 대비한 동계전지훈련 및 몽골 유도청소년대표팀 초청 친선 스토브리그를 실시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순천시는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몽골 청소년대표팀 등 700여명이 순천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선수와 가족들이 순천을 찾아 2주간 머무르면서 자연스럽게 관광지를 둘러보는 등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가 제 52회 대통령기 전국대

학야구대회 유치에 나선 것도 비슷한 전략에서다.

내년 7월 팔마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대회를 위해 찾은 전국 31개 대학야구팀 선수들만 1800여명에 이른다. 순천시는 여기에 이들 가족·친구들 800여명도 대회 기간, 순천을 찾아 경기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00여명의 선수·임원·가족들이 2주간 순천에 머무르게 되는 만큼 지역 경제·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순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에따라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를 위해 9200만원, 동계 유도전지훈련 등에는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되면 대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대비 지원도 요청기로 했다.

한편, 순천시는 연간 27개의 축제를 계획, 계절별로 진행하는 한편, 페이스북 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매주 1회 이상 축제 소식을 올리고 여행홍보물을 수천부씩 제작해 배포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농협 농특산물 해외시장 적극 공략

전라미향 수출상담회서

남도김치 우수성 홍보

순천농협이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순천농협은 최근 '2017 전라미향 수출컨소시엄 수출상담회'에 참석, 중국 바이어들을 상대로 남도김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날 상담회는 전남 우수 청정 농수산식품의 중국 진출을 위한 것으로, 전

남수출기업협동조합 주최로 열렸다.

농협측은 남도김치 가공 공장을 방문한 중국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위생적 가공시설과 제조과정을 설명하고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젓갈을 소개했다.

강성재 순천농협 조합장은 "전남의 대표적 농수산 가공식품인 '남도김치'의 맛과 품질을 외국 바이어들이 직접 체험함으로써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최 선 규 H. 010-3605-5000